

“위기의 인류, 전통사회에서 해법 찾아라”

21세기 세계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인류가 서 있는 곳은 어디인가. 오늘날 인류는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 종교 갈등, 국가 분쟁, 노인문제, 자녀 양육 문제는 심각하다. 물질문명 이면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생각보다 짙어, 인류의 미래를 위협한다.

세계적인 문화인류학자 재레드 다이아몬드가 해법을 제시하는 책을 펴냈다. 그가 쓴 ‘어제까지의 세계’는 ‘전통’이라는 키워드로 인간의 본성과 역사를 통찰한다.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19세기 찰스 다윈에 비견되는 세계적 지식인이자. 그는 2008년 노암 촘스키, 움베르토 에코, 리처드 도킨스와 함께 세계 지식인 100명에 뽑힌 만큼 인류의 문화지식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동안 저자는 문명 탐구를 기반으로 인류 역사의 다양한 측면을 분석해왔다. 인류의 탄생과 진화를 탐색한 ‘홍, 균, 쇠’는 현대관 고전이나 다름없다. 과일생산과 남비의 세태를 경고한 ‘문명의 붕괴’는 미래에 다칠 문명의 위기를 다뤘다. 이번에 그가 꺼내든 화두

‘어제까지의 세계’ 재레드 다이아몬드 지음



는 인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이다. 저자는 남태평양의 뉴기니 섬에서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까지 지구촌 구석구석을 탐사했다. 이를 바탕으로 그가 내린 결론은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1964년부터 나는 뉴기니 섬에서 연구를 했다. 그곳에는 중앙 정부도 없고, 법정도 없으며, 우리의 삶의 방식과는 매우 다른 전통 사회의 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들은 분쟁을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며, 위험에 대해 다른 태도를 취하며, 아이들을 다른 방식으로 키우며, 노인들을 다르게 대우하며, 건강을 대하는 태도 또한 매우 달랐다.”

지구상에는 수많은 종족과 문화가 공존한다. 이는 문제 해결 열쇠 또한 다양하다는 뜻으로 ‘어제의 세계’에서 지혜를 찾자는 의미로 확장된다. 삶의 방식과 타자와의 관계를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가치로 전

환하는 거다.

오늘의 세계와 전통사회는 분쟁해결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피해자의 보상과 피해 발생 방식이 오늘날의 해결책이라면 전통사회에서는 구성원간의 관계 회복이 우선이다. 생면부지의 사람을 만나야 하는 현대사회와 얼굴을 맞대고 살아야 하는 전통사회의 다른 특성 때문이다.

전통사회의 자녀 양육 방식 또한 참고할 만하다. 부모 외에 돌보는 이들이 많고, 유대 관계가 좋기 때문에 아이들은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을 스스로 배우고 삶을 즐길 줄 안다.

노인의 부양 문제도 전통사회의 가치관과 관습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과거의 사회는 현재보다 노인의 경륜과 지혜를 존중하고 훨씬 유용하게 활용했다.

이렇듯 저자는 서구 중심이 아닌 탈문명 시각에서 바라보면 미래를 낙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저자가 무조건 과거를 배우자고 역설하지는 않는다. 어느 전통사회에서는 여전히 약속이 남아 있어, 이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개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김영사·2만9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사회·철학·사랑·자유... 인문학을 듣다

‘강신주의 맨 얼굴의 철학...’

강신주·지승호 지음

지승호와 강신주가 만났다.

공지영·박원순·장하준·우석훈·신혜철·신성일 등을 만나 많은 ‘이야기’를 끌어낸 전문 인터뷰어 지승호. ‘상처받지 않을 권리’, ‘철학적 시 위기의 즐거움’, ‘김수영을 위하여’ 등을 펴낸 우리 시대 철학자 강신주.

막강한 내공의 두 사람이 붙은 인터뷰집 ‘강신주의 맨 얼굴의 철학’은 강신주의 글과 정신에 조금이라도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책장 넘어가는 게 가까운 책이다.

오후 7시에 시작해 새벽 2시에 끝난 첫번째 인터뷰에서 강신주는 코피를 쏟았다. 인터뷰 시간 50시간, 녹취를 준 원고량만 4500매에 이르는 600페이지 분량의



방대한 책은 그가 생각하는 ‘인문 정신’을 오롯이 담아냈다.

강신주 인문학 정신의 본령인 시인 김수영을 비롯해 유하·함민복 등 시인들과 철학자들을 맞세워 이야기를 들려주고 공자, 묵자 외 제자백가를 넘나든다. 또 스티브 잡스와 이견희, 노무현 등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는 또 하나의 창으로 작용하는 철학, 사랑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세상 그가 다루는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은 지 알 수 있다.

“모든 인문학은 사랑과 자유에 바치는 헌사”라고 이야기하는 강신주의 모든 것을 독자들이 알아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건 인터뷰어가 펴낸 모든 책과 칼럼, 논문들을 살살이 뒤져 질문을 던진 지승호의 힘이다. 독자들은 고맙고 행복할 일이다. 〈시대의 창·2만2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각 시대의 미술사를 하나의 지도에 그려내다

‘아틀라스 서양미술사’

슈테파니 펠크 외 15명 지음

각 시대의 명작은 어떻게 태어났을까?

모든 작품은 만든 사람, 출신지, 그가 활동했던 시기의 흔적을 담고 있다. 이 세상 어떤 작품도 그 자체만 따로 떼어내 고찰할 수 없다. 정치·지형·학문·예술·사회의 영향, 나아가 주변 세계의 모든 영향과 분리해서는 작품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술사학자인 슈테파니 펠크 등 15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집필한 ‘아틀라스 서양미술사’는 초기 인류가 이룩한 최초의 예술적 표현부터 현대까지 미술이라는 복잡한 분야를 명확하게 개관하고 명작들의 영향력과 유기적 관계를 섬세한 시선으로 풀어낸 책이다.



서양미술의 역사를 중심으로 문장과 그림, 지도, 연표, 도표를 삼입해 미술의 역사를 촘촘히 짜놓았다. 주요 거장들의 작품을 두루 섭렵할 수 있고, 중요한 미술관의 설립과 미술가의 삶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읽을 수 있다.

특히 다른 미술사 책에서는 볼 수 없는 선사시대, 초기 고대 문명, 비잔틴 시대, 로마네스크 시대의 미술 작품 사진이 다수 수록돼 있는 것도 특징이다.

방대한 양의 미술사 저서를 읽기 전에 추천하고 싶다. 이미 습득한 지식을 심화시키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방대한 참고문헌을 비판적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현암사·4만2000원〉

/김영민기자 kki@kwangju.co.kr

뜨거웠던 현장... 사진 속의 진실

‘사진의 탈’

노순택 지음

사진가 노순택이 펴낸 에세이집은 제목부터 심상치 않다. ‘사진의 탈’은 다분히 상징적인 표현이다.

집중의 몸에 탈이 있지만 탈이 집중을 말해 주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많은 사진이 있지만 사진이 세상을 모두 반영할 수는 없다.

저자의 사진에 대한 관점은 “사진은 모두 개입이다”라는 말에 담겨 있다. 그는 사진이라는 매체의 속성을 냉정하게 단언함으로써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

책에는 저자가 포착한 2000년 중후



반 대한민국 풍경이 담겨 있다. 그는 피사체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넘어, 아예 그 속으로 들어가는 법을 택한

다. 여중생 잠잠자 암사 사건,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 용산참사, 쌍용차 해고자 고공농성 등 휘발성 높은 현장에는 그가 있었다.

뜨거운 현장, 그러나 저자의 말처럼 ‘터럭’에 불과한 사진속의 진실

을 찾아내는 일은 독자의 몫일 수밖에 없다.

〈씨네21북스·1만 6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사소한 것들에 대한 따스한 시선

‘우리 얼마나 함께’

마중기 지음

“눈을 감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나는 누구와 이어져 있는지. 열마를 살고, 열마를 울고, 얼마나 노래했는지...”

고국의 시인이자 타국의 의사로 살아가는 마중기 시인의 산문집 ‘우리 얼마나 함께’가 나왔다. 그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주변의 사소한 것들에 보내는 따스한 시선을 글로 담아냈다.

어린 나이 피난을 갔던 마산에서의 추억, 찢어진 시절 떠난 경주 여행, 미국에서 만난 특별한 인연, 아버지의 묘를 개장해 어머니의 유분과 함께



합장했던 날, 존경하던 신부님과 추억, 장욱진 화백과의 인연 등 사소하지만 가슴에 사무치는 에피소드들을 소개하고 있다.

책은 그동안 시인의 시집이나 다른 산문집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그의 세세한 일상과 생각을 고스란히 보여 주고 있다. 동화작가 아버지(마해송)와 현대무용가 어머니(박희선), 동생들과 세 아들, 친구들, 문단의 지인들과의 만남이 얼마나 정 깊었는지 새삼 느낄 수 있다. 〈달·1만38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아버지의 34년 신문 스크랩으로 만난 한국사

‘대한국민 현대사’

고경태 지음

평범한 시민이 남긴 신문 스크랩이 토대가 돼, 한 권의 책으로 나왔다. 일간지 기자 고경태가 펴낸 ‘대한국민 현대사’는 저자의 아버지가 34년간 모았던 신문을 기초로 쓰였다.

스크랩에는 이승만의 공과, 박정희의 18년 통치, 전두환과 민주화 시위 등 현대사의 굵직굵직한 장면과 각종 재난, 사건사고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바라본 시선이 담겨 있다.

기존의 역사책에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도 수록돼 있다. 또한 당대 사회면에 오 르내렸던 이름들도 대거 등장한다. ‘유전무보 무전유



죄’라는 명언을 남겼던 탈주범 지강현과 스스로 ‘대도’이길 바랐던 조세형 등에 관한 이야기도 들어 있다. 이처럼 책은 유력 정치인이거나 권력가가 아닌 보통 사람들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불러 세운다.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한 국민의

집념 어린 스크랩이 만든 결실이다. “스크랩에 적힌 볼펜 글씨의 기록을 통해, 20대 중반의 청춘에서 50대 후반으로 넘어갈 때까지 세상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시선 변화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광경은 경이로웠다. 내가 역사다! 아버지라는 프리즘으로 본 한국 현대사는 훨씬 입체적이었다.”

〈푸른숲·2만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신간

▲피터 드러커의 산업사회의 미래=세계적 경제학자와 경영학자이 최고의 책으로 손꼽은 피터 드러커의 유일한 사회 이론서. ‘궁극적으로 히틀러는 패배한다’는 전제 하에 전반적인 사회 흐름을 예리하게 파헤치고 있는 이 책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인 1942년 출간했다. 책을 통해 사회 발전의 다양성을 조망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북스·1만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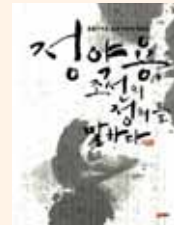


▲생명 교향곡=“달팽이처럼 느리게, 그러나 속삭이게처럼 영민하게...” 한광생 숲과 흙, 곤충과 새를 벗 삼아 어린이와 같은 호기심으로 자연이 품은 비밀을 탐구해 온 ‘달팽이 박사’ 권오길의 사계절 자연 관찰 일기. 저자가 강단을 떠난 후 한갓진 동네에서 직접 밭 갈고 씨 뿌리며 깨달은 사계절의 변화무쌍함과 생명의 신비로움을 엮었다.

〈사이언스북스·1만3000원〉



▲트리 하우스=‘달팽이 식당’의 작가 오가와 이토가 보내는 세상의 모든 상처받은 여성들을 위한 치유 소설. 일본 NHK 감동 드라마 ‘초루카메 조산원’의 원작 소설이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린 남편을 찾아 도착한 남쪽 하트 모양의 섬. 그 곳에 트리 하우스를 품은 초루카메 조산원이 있었다. 이곳에서 주인공은 조금씩 천천히 자신의 인생을 찾아가게 된다. 〈북스토리·1만3000원〉



▲정약용, 조선의 정의를 말한다=지금으로부터 200여년 전, 다산 정약용은 소송을 통해 서도 제대로 억울함을 해소하지 못한 백성들을 위해 형편한 한 권을 남겼으니, 그것이 바로 ‘흙흙신서’다. ‘정약용, 조선의 정의를 말한다’에서는 시대를 앞서간 위대한 선각자 다산의 ‘흙흙신서’를 들여다보며, 다산이 꿈꾼 정의로운 나라의 모형과 그가 꿈꾼 정의에 대해 다양한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BM책문·2만원〉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재미난 상황을 통해 사과는 법을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림책. 말쑥쟁이에 장난꾸러기에 개구쟁이인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의 사소한 상상 하나가 교실도 친구들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다.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친구들은 모두 엘리자베스를 쳐다보고 겁이 난 엘리자베스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다”고 사과한다. 〈단비어린이·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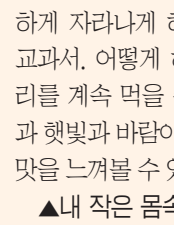
과 미래에 새롭게 등장할 직업들을 소개하는 책. 직업관을 형성해 나가는 어린이들이 책을 통해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엿보고 ‘내가 이 직업을 갖는다면...’이라는 상상으로 미래를 그려 볼 수 있도록 한다. 〈EK·1만4000원〉

어린이 책꽂이



▲자연을 먹어요! 봄=자연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먹을거리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서로서 나눠 먹으며 몸과 마음이 건강

▲오월의 달리기=33년 전, 뜨거웠던 광주의 오월을 불러낸 김해원 작가의 새 장편동화. 1980년, 전국소년체전 전남 대표 달리기 선수로 뿔뿔이 흩날려서 합숙 생활을 하게 된 열세 살 아이가 5·18 민주화 운동을 맞닥뜨리게 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실제 당시 국민학생으로, 광주에서 합숙 생활을 했던 육상선수를 직접 만나 꼼꼼한 취재를 거쳐 탄생했다. 〈푸른숲주니어·9800원〉



▲내 작은 몸속 거대한 세계=어린이가 알아야 할 인체의 모든 것이 담긴 그림책. 생명의 시작부터, 우리 몸을 좌우시키는 뇌와 척수, 이목구비, 피부와 근육과 관절, 피의 흐름과 소화와 배설 등 우리 몸에 대한 과학적 호기심을 풀었다. 신비하고 놀라운 인체 과학의 구조와 흐름을 배울 수 있다. 〈풀과 비바람·1만1000원〉

▲어린이를 위한 미래 직업 100=‘미래 직업’이란 이름으로 미래에도 여전히 유망할 직업들